

# 다시 활기 띠는 女性百科

세련된 편집감각으로 '보는 책' 표방

## 컬러시대 겨냥, 시각화 경향

한동안 출판이 뜸하던 여성백과사전계가 최근 2개 출판사에서 거의 동시에 새 전집을 내놓음으로써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여성백과사전을 새로 내놓은 출판사는 계몽사와 중앙문화사. 중앙문화사가 6월말 10권짜리 「엘리제」를 출간한데 이어, 계몽사가 7월 중순 12권짜리 「홈토피아」를 출간함으로써 여성백과사전계에 최근 주자로 뛰어 들었다.

이외에 작년 10월 1차 발간에 이어 올 2월 완간된 중앙일보사의 15권짜리 「라벨르」까지 합치면 올 상반기에만 3곳에서 여성백과사전을 펴낸 셈이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성백과는 상당히 많다. 75년 서문당에서 내놓은 「새생활대백과사전」(전 8권)을 비롯하여 중앙문화사의 「새여성생활대백과」(1975, 전 8권), 금성출판사의 「현대여성생활백과대사전」(1980, 전 12권), 삼성출판사의 「다이아나」(1984, 전 8권) 등 10여종이다. 여기에 새로 3종이 합세하여 바야흐로 여성백과사전계에 전국시대가 열렸다고 출판계의 한 관계자는 표현하고 있다.

여성백과사전은 10여년 전 이미 한차례 붐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당시 여성백과사전은 「가정백과」 「신가정백과」 등 1권짜리가 서너권 있을 뿐이어서, 전집형태는 큰 호응을 얻었다. 1권에 비해 그 내용의 방대함, 세분된 아이템, 다양한 사진자료 등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던 것.

그후 컬러시대와 가로쓰기 세대를 겨냥하여 새로 만든 것이 삼성출판사의 「다이아나」. 그 이전 책들이 세로쓰기인데다 사진이나 도표도 흑백을 사용하고 있어 변화는 독자들의 취향에 맞출 수 없는 점을 감안, 최고급 용지에 6천여점의 원색사진을 수록하고 가로쓰기로 편집하여 일대 혁신을 기했다. 출판사측의 말에 의하면 현재까지 18판을 찍었고, 200만부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한편 새로 나온 세 종류의 책은 모두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 가장 큰 특징. 세가지 모두 전면 울컬러에 훨씬 다양한 원색 사진·도표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편집에 있어서도 입체성을 강조하는 등, 이른바 내용도 살고 편집도 사는 '보는 책'으로서의 백과사전을 유도하고 있다.

또다른 특징은 내용이 보다 상세히 분화되고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현대감각에 맞도록 꾸몄다는 것. '백과사전은 더 이상 장식용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핵가족화,

생활의 과학화, 새로운 가치관 등의 변화를 수용, 그에 맞도록 내용이 보장되었다.

이렇게 여성백과사전 출판이 한동안 뜸하다가 거의 동시에 세가지나 쏟아져 나오는데 대해 출판계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 여성독자의 문화적 욕구 다양화

우선 컬러시대와 가로쓰기 세대에 알맞은 새로운 스타일의 여성백과사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 「다이아나」가 이런 요인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이기는 하나, 그후 사회적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정작 책을 필요로 하는 젊은 여성이나 주부들의 기호도 월등히 세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생겼다는 분석이다. 새로 나온 책들이 울컬러인데다 '보는

한동안 뜸하던 여성백과 출판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새로 나온 백과들은 "더 이상 장식용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책'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높여줬다는 것도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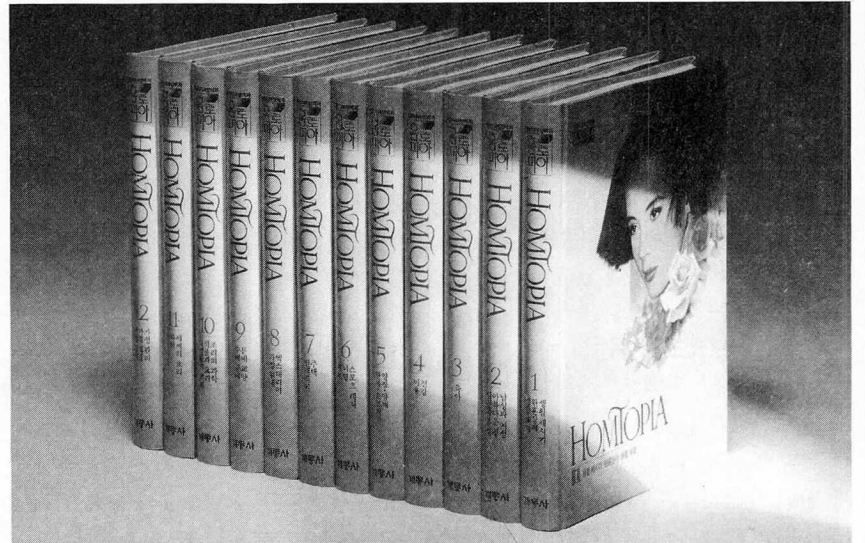
또한 독자층의 대부분인 여성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이 그 이전과 매우 다르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적인 관심도 다양해졌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 따라서 새 여성백과는 과거의 정석코스였던 요리·육아·미용·의상 등은 물론이고 인테리어·여행·레저 등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까지 상세하게 소개, 그 아이템을 다양화시켰다.

그리고 한 자녀 갖기, 핵가족의 추세가 사회 전반적인 것으로 굳어짐에 따라 이전처럼 시부모나 웃어른에게 도움받고 조언을 들을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도 한 이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위에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겪는 당혹스러움을 여성백과가 해결해준다'는 것이 여성백과사전의 주장이다.

이러한 성격들을 반영하고 있는 신간 여성백과사전들은 어떤 책인가.

올 2월 발간된 중앙일보사의 「라벨르」(La belle :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뜻)는 권당 236면의 15권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① 결혼·성·부부학 ② 임신·출산·어린이병 ③ 육아·자녀교육 ④~⑥ 요리 ⑦ 주택·인테리어·정원·주택법률 ⑧ 가정원예·취미생활 ⑨ 패션·미용·세이프업 ⑩



가장 최근 출간된 계몽사의 「홈토피아」

수공예·니트·꽃꽂이 ⑪ 가사 새기술·가정경제 ⑫ 건강관리·한방·간호 ⑬ 가정의학 ⑭ 레저·스포츠 ⑮ 생활캘린더·가정의례·법률로 구성돼 있다. 이중 "신부부학, 한자녀 시대의 가정교육, 가사의 새기술, 부업가이드 등이 독특한 내용이고, 요리가 3권이나 돼 다양한 국내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한다.

6월말 출간된 중앙문화사의 「엘리제」(Elysée : '낙원'이라는 뜻)는 전 10권, 각권 222면으로 돼 있다. 중앙문화사는 이전에도 「새여성생활대백과」(전 8권)를 내놓은 적이 있는데, 역시 새책의 필요성을 느껴 전면개정하게 된 것이다.

편집책임자는 이 책의 특징을 "독창적인 내용으로 꾸몄고 각면에 알맞은 사진·삽화를 수록함으로써 효과를 높였다"고 말한다. 각권의 내용은 ① 사랑·결혼·성 ② 임신·출산·육아 ③ 미용·다이어트·멋 ④ 패션·편물·레이스·자수 ⑤ 레저·스포츠·취미 ⑥ 인테리어·주택·정원 ⑦ 한국요리 ⑧ 외국요리 ⑨ 파티·스낵·건강식 ⑩ 예절·교양·가정경영 등이다.

## 막대한 제작비·인원 투입

한편 가장 최근 출간된 계몽사의 「홈토피아」(Homtopia :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신조어)는 그동안 아동도서를 주로 제작해온 계몽사로서는 새 분야를 개척한 셈. 「홈토피아」는 주부들이 방문사원을 통해 여성백과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는 것. 한 관계자는 "아동물 전집을 방문판매하다보면 주부들로부터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없겠

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말한다.

계몽사측은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독특한 시각적 효과에 있다고 본다. "유명인의 집필·감수로 내용도 충실하지만, 처음부터 미술부문과 편집부문을 완전 분리하여 양쪽에 다 충실을 기할 수 있었으며, 특히 글자모양이나 사진의 선택, 색감에 있어 손색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다.

전 12권, 각권 286면으로 된 「홈토피아」의 내용은 ① 생활세시기·관혼상제·생활예절 ② 남성과 여성·아름다운 성·임신과 출산 ③ 육아 ④ 건강·미용 ⑤ 양장·양재·한복·손뜨개질 ⑥ 스포츠·레저·여행·취미 ⑦ 주택·인테리어 ⑧ 엑스테리어·가정원예 ⑨ 문예·교양·수예·공예 ⑩ 조리의 과학·식품과 요리·식생활의 요리 ⑪ 세계의 요리·파티·식사에절 ⑫ 가정관리·가정법률·가정경제 등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각기 나름의 특색이 있기는 해도 그 내용은 비슷비슷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여성백과사전의 성격이다. 그러면서도 방대한 자료수집과 다양한 인원동원, 장기간에 걸친 제작시일, 막대한 제작비 등으로 쉽게 만들어지는 책은 아니다. 신간 여성백과들도 모두 수억씩 투자했고 제작기간도 2년여 걸렸다.

앞으로 책의 성패는 독자들의 안목을 잘 맞추었느냐에 의해 판가름될 것이다. 읽는 책에서 보는 책으로의 방향전환을 꾀한 신간들이 다시 여성백과사전의 붐을 일으킬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 박경순 기자